

금융위원장 모두 말씀

2017. 3. 8.

금 융 위 원 회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하여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 유관기관이
각자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그동안 우리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투자를 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영주 하나은행장님, 이광구 우리은행장님,
김도진 기업은행장님,
김규옥 기보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핀테크 지원과 관련하여 각 분야의 기관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I. 지난 2년간의 성과 평가

우리 정부는 '15년초부터
핀테크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처음 핀테크 정책을 시행할 때
금융과 IT가 만나 소통하고 융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자와 스타트업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총 520회)하고,

국내외 데모데이를 개최(총 20회)하여
유망 핀테크 기업의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였습니다.

금융업계와 유관기관의 지원과 협력에 힘입어
핀테크 지원센터가 생태계의 구심점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산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핀테크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총 1조3천억원)하고,

금융회사 차원의 핀테크 랩도 활성화되면서
핀테크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일을 이뤄냈습니다.

핀테크 창업과 관련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국민들의 핀테크 인지도와 만족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 전자금융업자수(개) : ('14) 60 → ('15) 83 → ('16) 97

핀테크 기업 투자규모(억원) : ('14) 87 → ('15) 473 → ('16.6) 777

** 국민의 66.3%가 '핀테크'를 인지, 핀테크 이용자 중 74.2%가 서비스에 만족('15.11, 한국리서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의 결과,
이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III. 앞으로의 정책 방향

그러나, 이 정도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 확산되면서,
금융서비스와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핀테크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 영국, 중국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성장을 시작한 국내 핀테크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단계 핀테크 발전 정책방향」을 마련 중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핀테크 지원체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핀테크 지원센터는
상담과 데모데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핀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교육, 투자, 해외진출 등
다양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 등의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핀테크 지원센터와
금융회사 핀테크 랩, 정책금융기관 등이
온·오프라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원기관들의 자율적인 협력과 참여에 기초하여
다양한 공동사업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일 기관의 자원과 역량으로 하기 어려운
핀테크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① 우선, 창업초기 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존 핀테크 기업 지원이
사업모델이 어느 정도 형성된 기업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4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창업초기 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② 투자 연계기능도 확충할 것입니다.

기존 핀테크 지원센터는
투자 연계기능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는데,

정책금융기관에 핀테크 전용 핫라인을 개설하여
향후 3년간 3조원으로 늘어난 금융지원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17~'19년 계획(억원) : 산은 5,000 · 기은 21,000 · 신보 2,000 · 기보 2,000 · 성장사다리 300

또한, '금융권 공동 데모데이(3.30일)'를 개최하여
지원센터와 금융회사 핀테크 랩에서 육성된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유치하는
금융권 공동의 장(場)을 마련할 것입니다.

③ 해외시장 진출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요 해외시장에서 데모데이를 개최하는 한편,

미래부 산하 보육기관인 KIC와 연계하여
우수 핀테크 기업이
실리콘밸리, 베이징 등의 현지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IV. 마무리 말씀

여러분,

디지털 경제의 특징은
일정 분기점(tipping point)을 통과하면
기하급수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핀테크 육성에 착수한지 2년째 되는데,
올해가 이러한 분기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조만간 영업을 개시하고,

로보어드바이저와 오픈 플랫폼 연계 서비스*도
상반기 중 출시될 것이며,

* (예) 중고나라는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시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를
기반으로 안전결제(에스크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중

블록체인을 활용한 파일럿 프로젝트*도
올해 안에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은행) 고객이 외국환 지정거래은행 변경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간편하게 처리
(금투) 다수 증권사와 거래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로그인과 인증절차를 통합관리

금융산업의 핀테크 혁신이 더욱 가속화되고
국민들이 금융생활의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핀테크 산업이 분기점을 지나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지원기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우리 핀테크 산업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핀테크 산업의 발전방향,
각 기관의 지원계획, 지원기관 간 협력방안 등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